

공돈 인식·솜방망이 처벌...도덕적 해이 불러

보험범죄 뿌리뽑자

왜 끊이지 않나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3480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2.1% 증가했다. 이는 반기 기준으로는 지금까지 가장 많은 적발금액이다.

적발 인원은 4만5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감소했다. 금액은 늘고 인원은 줄면서 1인당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4년 상반기 705만원에서 지난해 상반기 758만원, 올해 상반기 869만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를 연간으로 계산하면 국민 1인당 14만원씩 가만히 앉아 사기당한 셈이다. 적발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실제로는 한해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로 인해 이전에는 입증이 어려웠던 의료비 허위청구 등 이른바 '나이롱 환자'에 대한 적발 규모가 2014년 상반기 320억 원에서 지난해 상반기 430억원, 올해 상반기 501억원으로 늘었다.

이처럼 조직화된 사기수법 등 보험범죄가 끊이지 않는 원인은 무엇일까?

1차적 원인은 죄의식 결여다. "그 정도의 거짓말이 무슨 죄냐"는 잘못된 생각이

"남들도 하는데" 팽배... 1인당 사기금액 갈수록 늘어 징역형 선고 일반 사기범의 절반...대부분 벌금형 그쳐

로 범죄 유혹에 빠져든다는 것이다. 또 "남들 다하는데 나는 왜"라는 피해의식도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이들의 마음 한편에 자리잡고 있다.

피해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 살인·강도·절도 등은 눈에 보이는 상대방이 있지만 보험사기 피해자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이어서 직접적인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1회 수령금액이 많지 않다는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 보험사기의 특징은 '티끌 모아 태산'이다. 1회 수령액은 그리 많지 않지만 사기금액이 수년간 지속되다보니 수억원대에 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사기 적발의 어려움과 함께 솜방망이 처벌 탓도 크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조사한 보험 사기 피해의자 유죄 확정판결 현황을 보면 2002년 772명에서 2012년 1578명으로 10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보험사기범에 대한 징역형 선고 비율은 2002년 25.1%에서 2012년 22.6%로 감소했다. 이는 일반 사기범의 징역형 비율(2011년 기준 45.2%)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에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 비율은 10년 새 9.3%에서 51.1%로 5배 이상으로 늘었다.

최장 20년형의 1급 중범죄로 다스리는 미국 뉴저지주와는 천양지차다. 미수에 그쳐도 보험남용죄로 처벌하는 독일에 비하면 더욱 그렇다.

보장성보험의 마구잡이 가입도 문제다. 전문성이 결여된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의 실적 경쟁에 내몰려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보험 가입 때

는 양이 됐다가 보험금 지급 때는 범죄자 취급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사고 규모를 좀 더 부풀려 실제로 받을 보험금보다 더 받아 챙기는 행위에 대해 '이 정도쯤이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산업 자체가 사행성을 띠고 있다 보니 사고가 나면 '한뼉 쟁길 기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도 보험사기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서 사무장 병원 운영 수십억 챙긴 2명 구속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전승수)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의료법·특경법상 사기)로 A씨와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1월 22일부터 지난 6월까지 광주에 의원 2곳과 한의원 1곳을 개설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4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4년 9월 2일부터 지난 6월까지 A씨가 운영하는 의원에 건강검진센터

를 차려 A씨와 함께 6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다.

임상병리사 출신인 A씨와 부친이 과거 비의료인 자격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던 B씨는 병원 근무 경력을 토대로 제도의 하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 법인만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A씨 등은 비영리 사단법인을 차려 법인 활동은 하지 않은 채 의원을 개설해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갑질' 62명 검거

광주지방경찰청은 '갑(甲)질'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38건의 갑질 범죄를 적발, 62명을 검거해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청은 '갑질 횡포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난 1일부터 100일간 정부 기관 등의 권력형 비리, 납품·입찰 비리, 직장 내 폭력·성폭력, 블랙 컨슈머(악성 소비자) 등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갑질 범죄를 특별단속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외사과는 외국인 여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A(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광주 북구 소재 자신의 식물원에서 캄보디아 출신 20대 여종업원에게 "일을 가르쳐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강제로 몸을 만지고 추행한 혐의다.

광주 서부경찰도 말대꾸했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B(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 6월 오후 11시에 광주 광산구의 한 공장에서 팀원 C(30)씨를 팀장인 자신의 이름을 적당자로 등롱한 것을 놓고 말대꾸를 벌이다가 "말대꾸를 했다"며 C씨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다. /박정욱기자 jwpark@



"아동학대 추방합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2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서 아동학대 인식 전환을 위한 거리 홍보를 실시했다. 어벤져스 등 유명 캐릭터 복장을 한 사람들이 총장로 우체국앞에서 악당을 물리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21 해질 23:42
해짐 18:30 달짐 13:05

일교차 커요!
대체로 맑겠으며, 이른 아침에 안개 끼는 곳도 있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16/27	보성	맑음	13/26
목포	맑음	17/26	순천	맑음	16/27
여수	맑음	19/25	영광	맑음	14/26
나주	맑음	14/27	진도	맑음	15/26
완도	맑음	17/26	전주	맑음	16/25
구례	맑음	14/27	군산	맑음	16/25
강진	맑음	14/26	남원	맑음	14/25
해남	맑음	13/27	축산도	맑음	17/23
장성	맑음	14/26			

◇바다 날씨

		오전	파고(m)	오후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	북~북동	0.5
남부	면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남해	면바다(동)	북~북동	1.0~1.5	북~북동	1.0~1.5
서부	면바다(서)	북~북동	0.5~1.5	북~북동	0.5~1.5

◇생황지수

식중독	주의
자외선	보통
미세먼지	보통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6:45	11:47
	19:35	00:00
여수	01:09	07:22
	14:09	20:16

◇주간 날씨

24(토)	25(일)	26(월)	27(화)	28(수)	29(목)	30(금)
☀	☀	☀	☀	☁	☀	☀
17/28	17/27	18/27	19/26	20/24	19/25	17/25

조선대 총장 강동완 교수 선출

조선대 제16대 총장에 강동완 의학과의 교수가 선출됐다.

조선대 이사회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강동완 후보를 총장으로 선출했다. 강 교수는 지난 20일 열린 총장 선거에서 344표를 얻어 최다 득표했다.

강 교수는 광주제일고를 졸업한 뒤 조선대에서 치의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조선대 치과병원장, 치과대학장, 대한소포츠치의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4년이며 취임식은 오는 29일 열린 예정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 저수지 3201곳 중 내진설계 101곳 뿐

전남지역 대부분의 저수지가 내진설계가 되지 않아 지진 대응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농업용 저수지의 내진설계 적용은 전체 대상 112개 저수지 중 102곳이 완료됐다. 보강이 필요한 곳은 10곳이다.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진설계 기준은 총 저수량 50만㎥ 이상이고 제방 높이가 15m 이상이다. 법적으로는 대형 저수지만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중·소형 규모인 전남지역 대부분의 저수지는 배제됐다.

전남지역 전체 저수지 3207곳 중 내진설계를 갖춘 것은 101곳뿐인 셈이다. 내진설계율이 불과 3.1%에 그쳤다. 지난 12일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 지

진이 발생한 뒤 500차례 가까이 여진이 발생하면서 저수지 붕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저수지 분야가 정책의 사각지대"라고 진단했다. 특히 지자체 관리 저수지는 인력·예산 문제로 방치되기 쉽다는 우려도 드러났다. 예산 확대와 함께 내진 설계 적용 범위를 넓히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지질 전문가들은 "저수지가 붕괴하면 농작물은 물론 가옥에까지 물난리를 피할 수 없게 된다"며 "내진설계 적용 기준인 저수량 50만㎥ 이상을 30t가량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와 별도로 기존 시설물 보강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형기자 golee@

제19회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2016. 10. 14.(금) ~ 10. 16.(일)

제19회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전국판소리·고수 경연대회 일정

흥과 멋의 우리가락! 아름다운 보성소리의 향연

●일시 : 2016. 10. 15.(토) ~ 10. 16.(일)/2일간
●장소 : 다향체육관, 보성군문화예술회관, 서편제보성소리전수관

구분	예선	본선	경연장소
판소리	대학및 일반부 명창부	2016.10.15.(토) 13:00 10:00 체육관 대가(세3)	2016.10.16.(일) 10:00 다향체육관특설무대
	신인부 학생부	2016.10.15.(토) 10:00 08:30 예술회관 로비	2016.10.16.(일) 11:00 보성군문화예술회관
	고수	신인부 일반부 명교부	2016.10.15.(토) 13:00 11:30 전수관 야외부스

●참가신청
- 접수기간 : 2016. 9. 1. ~ 10. 13. 18:00까지 도착 분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및 대리 신청, FAX · 우편 · e-mail 신청가능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2매
- 참가비 : 없음

●신청접수
- 접수처 : 서편제보성소리축제추진위원회(보성문화원), 보성군청(문화관광과)
- 우편 : (59453)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281-11 보성문화원 또는 (59455)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문화관광과)
- FAX : (061)853-2629 ※ 팩스신청자는 예선당일 경연순서추첨 30분전까지 사진 제출
- e-mail : bs2629@hanmail.net
- 접수안내 : (061)850-5892, 서편제보성소리축제 홈페이지 http://sori.boseong.go.kr

주최/주관 : 보성군 서편제보성소리축제추진위원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KoTPA